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의 사상(思想) 일고(一考)

명계환*

• 목 차 •

- I. 문제와 구상
- II. 기존의 연구시각과 동향
- III.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와 경초선(莖草禪)
- IV. 경초선(莖草禪)과 『삼국유사(三國遺事)』
- V. 정리와 과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외래강사.

© 『淨土學研究』 제32집, 2019년 12월, pp.215-244.

한글요약

이 연구는 고려 후기의 불교계 고승(高僧)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일연의 사상을 밝히는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사료적 가치 때문이다. 그에 대한 이해가 깊을 때 『삼국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그의 현전하는 저작인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불교 경전(經典)과 논소(論疏), 그리고 그의 생애와 사상 담긴 비문(碑文)을 살펴보았다. 특히 『중편조동오위』에서는 조동오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실천방법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키고 있다. 일연은 중생교화를 위해서라면 죽어서 다음 생애 풀을 뜯는 마소[馬牛]가 되어서라도 주인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경초선(莖草禪)에 입각한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삼국유사』에도 잘 나타나는데, 그가 선사로서의 선적(禪籍)이나 어려운 교학(敎學)보다는 불교 경전(經典)과 논소(論疏)를 인용했으며, 그 내용도 쉽고 재미난 신앙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하는 등 대중적 지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소위 대승이 대승다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제도하지 않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自未得道 先度他)’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대승의 보살은 중생구제의 서원(誓願)을 세우고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廻向)한다. 일연은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하고 회향시킨 경초선(莖草禪)에 입각한 사상가였다.

주제어

일연(一然), 『삼국유사(三國遺事)』,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경초선(莖草禪), 대승보살행(大乘菩薩行)

I. 문제와 구상

고려 후기의 불교계 고승(高僧)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 1206~1289)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술자로 잘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 우리민족의 시원과 자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불교가 전래 되어 정착되는 과정과 불교사상과 문화 등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간의 연구자들은 『삼국유사』의 내용과 체재 및 문헌적 성격을 역사서(歷史書), 불교사서(佛敎史書) 내지 불교문화사서(佛敎文化史書), 설화집(說話集), 민족지(民族誌)로 규정하고 연구해 왔다. 또 향가나 이두 연구의 자료집으로 활용하는 등 『삼국유사』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찬술자인 일연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일연의 사상을 밝혀내는 일은 『삼국유사』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넘어서야 할 관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의 사상을 밝히는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 때문이다. 일연에 대한 이해가 깊을 때 『삼국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도 더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심미적(審美的)· 함축적(含蓄的) 상징적(象徴的)인 내용 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일연의 사상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¹⁾ 다행히 1970년대에 그 이름만이 전해지던 일연의 또 다른 저작인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가 발견되었고, 이후 그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활개를 띄기 시작했다. 또한 일연의 비문을 최대한 복원하는 성과가 이어지면서 그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일연의 사상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

1) 김상영,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세미나』,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2009, p.107.

들이 비로소 진행되었다.²⁾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삼국유사』외에 직접적인 저술이 남아 있지 않다는 자료적 한계가 그 원인이다.

이 연구는 일연의 사상을 획일적으로 규정 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의 유일한 저작 가운데 하나인 『중편조동오위』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불교 경전(經典)과 논소(論疏), 그리고 그의 생애와 사상이 담긴 비문(碑文)을 살펴보면서 그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일연의 사상과 관련해 주목되는 연구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는 김상영, 위의 논문, pp.79-80을 참조.

주저자(년)	제목
全海住(1991)	『일연의 화엄사상』, 『아세아에 있어서 화엄의 위상』, 대한전통불교연구원.
月 雲(1992)	『일연의 수행관-『楞嚴經環解刪補記』通妙中 五濁說을 중심으로-』, 『일연과 삼국유사』, 세미나 자료집, 중앙승가대학.
金相永(1993)	『일연과 재조대장경 보판』, 『논문집』 2, 중앙승가대.
韓鍾萬(1997)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연구』, 『한국불교학』 23, 한국불교학회.
金相鉉(1997)	『일연의 불교사상』, 『녹원스님고회기념학술논총 한국불교의 좌표』.
金相永(1998)	『일연의 저술과 불교사상』, 『불교사연구』 2,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金鎬貴(2001)	『중편조동오위』, 『불교원전연구』 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金杜珍(2002)	『일연의 생애와 저술』, 『전남사학』 19, 전남사학회.
金杜珍(2003)	『일연의 心存禪觀사상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학논총』 2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金杜珍(2005)	『일연의 불교사상』, 『삼국유사 연구』 창간호, 일연학연구원.
蔡尙植(2006)	『일연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韓基汶(2007)	『고려 후기 일연 주관 인각사 구산문도회의 성격-일연비 음기 문도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金鎬貴(2010)	『인물한국선종사』, 붓다북.
오대혁(2013)	『一然의 禪思想과 『三國遺事』의 상관성』, 『한국어문학연구』, 60, 한국어문학연구회.
김나영(2014)	『『三國遺事』를 통해 본 일연 불교사상의 실천적 의지 - 『重編曹洞五位』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蔡尙植(2017)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II. 기존의 연구시각과 동향

일연의 불교사상에 관해서는 최남선(崔南善)의 『삼국유사』 「해제(解題)」³⁾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후 일부 글에서 다루기도 했다.⁴⁾ 하지만 1973년 이전까지 일연의 불교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1980년대에는 일연의 사상보다는 지눌(知訥), 혜심(慧諶)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도의 연구는 있었다.⁵⁾

일연의 불교사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민영규(閔泳珪) 교수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는 일연의 선 사상을 언급하면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북종선(北宗禪)이라는 독특한 주장을 펼쳤으며, 그의 가풍을 마소가 먹는 풀인 경초(莖草)로 표현되는 경초선(莖草禪)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경초선 사상이야말로 인간 세계에 홍익이 되기를 기약하는 봉사의 정신인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⁶⁾

지금까지의 연구된 일연의 불교사상은 주로 그의 비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생애에 관련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등에도 일부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일연이

3) 『육당 최남선 전집』, 『삼국유사』 해제 8 인용문, 8권, 현암사, 1973, pp.19-20.

4) 今西龍은 일연비를 중심으로 일연에 대한 글을 처음 발표했다. 『高麗普覺國尊一然に就きて』, 『藝文』 9-7-8호, 1918. ; 『高麗及李朝史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4.

5) 李楠永, 「삼국유사와 僧 일연과의 관계 고찰」, 『철학논구』 2, 서울대학교 철학과, 1973.

6) 閔泳珪, 「일연의 선불교-신라와 고려의 구산선문은 남종이 아니고 북종이다-」,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973.; 『한국고전심포지움』 1, 진단학회 편, 일조각, 1980. 하지만 김지건은 저본의 莖草는 芝(至)草의 오자라고 했다. 따라서 민영규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지건,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서 역주, 『수미산문과 조동종』-『구산선문』 8, 불교영상회보사, 1996, p.336.

입적한 후 인각사(麟角寺)에 세워진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이다.⁷⁾ 비문에는 일연의 생애와 함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⁸⁾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임제종(臨濟宗) 계통의 간화선에 입각한 선승이지만 조동선(曹洞禪)과 운문선(雲門禪) 등의 다른 계통의 선 사상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닌 인물로 짐작하는 것이다.⁹⁾ 인홍사(仁弘寺)에 주석한 후에는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관음신앙(觀音信仰)을 통한 공덕(功德)과 다라니(陀羅尼) 신앙을 통한 신비적인 요소까지 표방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¹⁰⁾ 또 “중통 신유년에 왕명을 받들어 개경으로 가서 선월사에 주석하면서 개당하고 목우화상 지눌의 법통을 요사했다.”¹¹⁾라고 하는 비문의 내

7) 비문의 고려국 의흥 화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존비명 병서(高麗國 義興 華山 曹溪宗 麟角寺 迦智山下 普覺國尊碑銘 并序)에는 “원나라 세조로부터 조열대부와 한림 직학사의 직을 받았고 본조로부터 정현대부 밀직사 좌승지 국학 대사성 문한 시강 학사 충사관 수찬관, 지제고 지관도사, 시제자 우유선 대부 사자금어대 등직을 역임한 신 閔漬(1259)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宣授朝列太夫, 遙授翰林直學士, 正憲太夫, 密直司, 左承旨, 國學, 太司成, 文翰, 侍講, 學士, 充史館, 修撰官, 知制誥, 知版圖司, 事世子右諭善, 太夫, 賜紫金魚袋, 臣, 閔漬, 奉勅, 撰).”라고 되어 있다. 가산지관 역주_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 12 精選 韓國高僧碑文』;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2011, pp.547-551의 번역과 원문을 참조.

8) 이 연구의 비문에 대해서는 가산지관 역주, 위의 책, pp.545-631과 불교중앙박물관, 『인각사와 삼국유사』, 대한불교조계종 출판부, 2013, pp.263-271을 참조했다.

9) 채상식,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혜안, 2017, p.24.

10) 채상식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오랜 전란에 지친 민중들로 하여금 신앙적 활로를 갖도록 하기 위한 현세구원적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며, 『삼국유사』를 찬술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채상식, 위의 책,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pp.22-27.

11) 가산 지관 역주, 앞의 책, p.561의 번역과 원문을 참조. “中統辛酉, 承詔赴京, 住禪月社開堂, 遙嗣牧牛和尚.” 김상영은 “일연비에 등장하는 ‘遙嗣牧牛和尚’이라는 표현, 즉 ‘일연이 멀리 普照國師 知訥의 법을 계승했다’는 표현을 놓고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 상태이다. 실제로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일연의 선종사적 위치는 상

용을 근거로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돈오하고, 대중교화의 실천을 강조하는 점수를 말하는 선 사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¹²⁾

김두진 교수는 가지산문의 범맥을 이은 일연은 애초 선관(禪觀)을 중시하면서 화엄사상을 깊이 이해했으며 유식사상까지 조예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상을 ‘심존선관(心存禪觀)’¹³⁾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비문에는 “포산 포당암에서 주석하면서 마음에 간절히 선관을 닦았다.”¹⁴⁾라고 하면서 이 ‘심존선관’ 사상은 고려불교의 교선융합의 사상적 경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⁵⁾

이 밖에는 일연이 지눌의 깨달음과 원효의 사상을 연결시켰으며, 또 그러한 관점을 수궁했기에 화엄선이 비롯되었다고 했다. 즉 지눌은 선엄일치(禪嚴一致)를 주장하면서 선종의 철학적 기초는 화엄이라고 했으며, 그러한 지눌의 이문진심(二門眞心) 사상이 원효의 이문일

당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일연이 夢如 등의 수선사 계통 선승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그가 편찬한 『선문염송사원』 30권 역시 惠謙의 『선문염송』으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수선사와 연결되어 있던 강화 禪月社에 주석하면서 일연은 자연스럽게 ‘遙嗣牧牛和尚’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놓고 ‘수선사의 계승자’ 차원이나, ‘구산문 전체의 중흥조’인 지눌의 법을 계승했다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다. 김상영, 앞의 논문, p.83.

- 12) 오대혁, 「一然의 禪思想과 『三國遺事』의 상관성」, 『한국어문학연구』 Vol.60, 한국어문학연구회, 2013, p.69.
- 13) 심존선관 사상은 선 수행을 으뜸으로 삼으면서도 교학사상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p.57.
- 14) 가산 지관 역주, 앞의 책, p.557의 번역과 원문 참조. “厥後寄錫于包山寶幢庵 心存禪觀.”
- 15) 김두진 교수는 일연의 선종사상 통합은 산문으로 나뉘기 이전의 근본적인 선관을 강조했으며, 모든 선종사상은 근원에서 같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일연의 만년 이후가 되면 고려 불교계 내의 가지산문(迦智山門)과 사굴산문(闍崛山門) 등 9산선문의 차별은 점차 무의미해져 갔는데, 그것은 선종사상을 통합하려는 일연의 노력의 한 결과라고 하면서 일연 선 사상의 위상을 높이 평가했다. 김두진, 앞의 책,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pp.57-67.

심(二門一心) 사상과 긴밀하게 상통하고 있어서 일연은 원효와 지눌의 사유 체계와 사상의 긴밀성에 대해 충분히 동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일연의 세계관을 화엄선(華嚴禪)으로 본 것이며, 아울러 화엄선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¹⁶⁾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⁷⁾

일연의 사상에 대한 정립이 어려운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일연의 사상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의 저술은 100여 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현전하는 자료는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 2권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연은 선을 참구(參究)하는 선승(禪僧)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의 불교사상은 교학(敎學)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선승의 선지(禪旨)는 불교교학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그의 불교사상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연의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인 접근에 머문 이유는 바로 이런 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¹⁸⁾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좀처럼 납득 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선시불심 교시불어(禪是佛心 敎是佛語)”¹⁹⁾라고 하여 부처님의 말씀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가르침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선지와 교학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삼국유사』 문장

16) 서경희, 『三國遺事』에 나타난 華嚴禪의 文學的 形象化 : 一然의 世界觀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4, pp.163-165.

17) 김상영, 앞의 논문, pp.78-83 요약.

18) 김두진, 「일연의 心存禪觀사상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학논총』 2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3, pp.5-6.

19) 曹谿 退隱 述, 『禪家龜鑑』(『卍續藏經』63, 737하),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禪旨)가 되고, 일생동안 설하신 말씀은 교문(敎門)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世尊三處傳心者爲禪旨 一代所說者爲敎門 故曰禪是佛心 敎是佛語).”

속에 담긴 행간(行間)을 읽어내는 능력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연과 같이 수행자적 입장이 되어 삶에 대한 통찰을 꾀한다든가, 또는 그가 남긴 저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탐구 속에서 문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문제는 과제로 남겨두겠다.

일연의 현전하는 저서로는 『삼국유사』 외에도 『중편조동오위』가 있다.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의 저서가 아닌 편집본이기에 그의 사상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²⁰⁾ 반면에,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실천케 한 일연의 공로가 여기에 있다고 한 견해도 있으며,²¹⁾ 그의 가풍을 경초선(莖草禪)으로 표현하면서 그의 현실지향의 선법의 풍모는 종래의 임제선, 간화선과 달리 대중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바라본 시각도 있다.²²⁾ 이러한 주장들은 일연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견해이기에 좀 더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윤천근, 「일연의 불교사상 - 조동선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Vol.60, 한국동서철학회, 2011. 또 채상식은 “『조동오위』가 단지 일연이 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선 사상의 경향을 조동종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다. 일연이 중편한 이유는 당시 대표적인 선 사상으로 풍미하던 간화선과 쌍벽을 이루던 조동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여러 갈래의 선 사상을 융합하고 조화시키려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채상식, 앞의 책,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p.25.

21) 김호귀, 『인물한국선종사』, 붓다북, 2010, pp.134-139.

22) 고영섭, 「청한(淸寒) 설잠(雪岑)의 불교 인식 : 조동선(曹洞禪)과 경초선(莖草禪)의 스님과 퍼짐」, 『문학/사학/철학』 Vol.13,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 p.117.

Ⅲ.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와 경초선(莖草禪)

『중편조동오위』는 1970년대 중반 일본 교토[京都]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서 민영규 교수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²³⁾ 이때부터 『중편조동오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의 번역작업에 의해 심오하고 난해한 『중편조동오위』에 대한 내용 이해도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²⁴⁾ 아울러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에 대한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일연의 사상을 밝혀려는 연구는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²⁵⁾

23) 민영규 교수는 어떤 필요가 있어 조동종 관계 일본의 초기전적을 섭렵하다가, 연보(延寶) 8년(1680)에 중간(重刊)된 『중편조동오위』에서 거기에 인용된 모백태자인연경문(慕魄太子因緣經文)에 기자함호(豈字函號)를 첨기(添記)한 사례에 부딪쳤다. 일연이 아니고서야 이만한 용의(用意)가 있기 어렵다는 것이 내 소견이었으므로(일연의 『三國遺事』에 천자함호(千字函號)의 용례가 다섯 조례 가량 보인다.) 무심히 지나친 중편자 회연의 자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일연의 저서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영규, 「자료: 一然, 重編曹洞五位(上/下)」, 김나영, 「『三國遺事』를 통해 본 일연 불교사상의 실천적 의의 - 『重編曹洞五位』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민족어문학』 Vol.66, 한민족어문학회, 2014, p.257.

24) 『중편조동오위』의 대표적인 완역으로는 이창섭·최철환,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2002가 있다.

25) 『중편조동오위』와 관련하여 일연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일연의 불교사상은 비문이나 지눌의 선 사상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둔오하고, 대중교화의 실천을 강조하는 점수를 말하는 선사상이었다. 『중편조동오위』를 통해서도 조동오위의 사상이 지눌의 선 사상을 계승한 일연의 선사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오대혁, 앞의 논문. (2) 『중편조동오위』에서 글쓰기와 언어미학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인 向上語·事上語·兼帶語 등의 용어를 추출하여 『宋高僧傳』, 『景德傳燈錄』, 『三國遺事』에 대입시켜 논의를 펼쳤으며 『삼국유사』 글쓰기와 일연의 글쓰기 인식에 대해 고찰했다. 장친구, 「『重編曹洞五位』와 『삼국유사』」, 『한국어문학연구』 Vol.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3) 『삼국유사』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기술 방식에서 감지되는 ‘어울리지 않음’과 ‘모호함’이 정위와 편위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았던 일연의 사상적

이러한 경향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중편조동오위』가 일연의 사상을 정립해 줄 수 있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중편조동오위』는 일연의 저서가 아닌 편집본이라는 데에 있다. 또 그 편집내용조차도 일연이 개입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사실상 그의 선 불교적 인식이나 지향점, 그리고 사상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직접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서이다.²⁶⁾ 『중편조동오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문이 있다.

요즘 들어 보법 노겸 선사(가)가 송본을 얻어 중간하면서 조산과 동산의 흠어진 글을 다시 모으고 아울러 소산과 말산 두 스님의 어절을 배열하여 하편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세하지 못한 곳은 보완했지만 지나치게 오류가 많고 잘못이 적지 않았다. 내 이러한 근심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한번은 조계 소용 화상을 찾아뵈는 일이 있었는데, 화제가 조동종의 가세에 미치게 되자 화상께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시며 재삼 탄식하셨다. … (중략) … 간운이라 한 것은 조산 스님의 말씀이며, 석운은 광휘 스님의 말씀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은 한쪽이 자세하고 한쪽이 간략하여 그중에 간략한 것은 버리고 자세한 것을 취했으며, 양쪽이 공통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단, 글에 들쭉날쭉함이 있으니 어찌 이해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랴. 주를 내지 않았거나 풀이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짧은 견해로 보완했으니.²⁷⁾

세계에 기인하며, 그러한 사상적 지향의 실천이 곧 『삼국유사』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김나영, 앞의 논문. ; (4) 조동오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키고 그것을 실천케 한 일연의 공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호귀, 앞의 책, 『인물한국선종사』

- 26) 윤천근, 앞의 논문. 또 채상식은 “『중편조동오위』에는 일연이 중편한, 곧 보충한 내용만이 일연의 고증 능력, 사상적 관심·태도 등을 알 수 자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조동오위』의 내용은 일연이 관심을 갖고 문헌적 보완과 오류를 지적한 대상일 뿐이지 그의 독창적인 찬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채상식, 「一然의 『重編曹洞五位』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Vol.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pp.119-220.
- 27) 晦然(一然), 『重編曹洞五位』(韓佛全6, 216하-217상), “比有普法禪師老謙得宋本重刊 又拾曹洞之遺文 并疎山末山 二家語訣 排爲下篇 其不甚詳 過

위의 내용에서는 『중편조동오위』 편찬에 대한 일연의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저술은 이전에 전승되어 온 조동오위(曹洞五位)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지혜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수행과 보살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까지 전승되어 오던 조동오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실천방법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킨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²⁸⁾

『중편조동오위』는 조동종의 기본적인 교의인 조동오위에 대한 흐름과 체계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일연이 보주(補註)를 덧붙여 편찬한 것이다. 조동오위는 동산 대사가 방편문을 열어 이 세계의 존재 방식과 깨달은 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혀 놓은 것이다.²⁹⁾ 본래 조동오위는 동산양개(洞山良价, 807-869)가 수행자의 수행과 그 실천을 행한 다섯 가지 양상을 정과 편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편정오위(偏正五位)라고 하는데 주로 조동종에서 창출되고 발전하여 전승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동산오위(洞山五位)에서 오위의 각 명칭은 정위각편(正位却偏) 편위각정(偏位却正) 정위중래(正位中來) 편위중래(偏位中來) 상겸대래(相兼帶來)로 유통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의 제자 조산본적(曹山本寂)이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어받아 새로이 오위를 정립했다. 즉 오위의 각 위(位)마다 축위송(逐位頌)을 지어 정중편(正中偏) 편중정(偏中正) 정중래(正中來) 편중지(偏中至) 겸중도(兼中到)의 용어를 완성 시킨 것이다.³⁰⁾ 다섯 가지의 내용은

致多乖謬 爲失不淺 嘗自介懷 曾謁 曹溪小融和尚 語及曹洞家世 和尚亦以此云 慨然流嘆者再三” … (중략) … “凡揀云者曹山語也 釋云者輝語也 二文前後詳略不同者 取詳去略 兩通者 俱存之 但文有前却 豈涉胸臆 至於闕注不釋處 補以短聞.” 이창섭 외 1인, 앞의 책, pp.15-16의 번역을 인용.

28) 김호귀, 앞의 책, 『인물한국선종사』, p.132.

29) 오대혁, 앞의 논문, p.51.

30) “정(正)과 편(偏)은 각각 주(主)와 빈(賓) 및 이(理)와 사(事), 공(空)과

다음과 같다.

첫째, 본래의 진리를 터득하여 그것을 현실의 세계에 실현하고자 하는 일체의 수행으로서 정중편이다. 둘째, 일상의 현실 세계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하여 믿음과 실천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편중정이다. 셋째, 순수한 진리만을 표현한 전분체(全分體)의 입장으로 정중래이다. 넷째, 온전히 현상의 세계로만 파악한 전분용(全分用)의 입장으로 편중지이다. 다섯째는 현실과 진리가 서로 어울리면서 뒤섞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며 진리에서 현실이 적용하는 열린 관계로서의 겸중도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양상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어느 측면으로부터 진리에 접근하고 어떻게 중생교화에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이다. 그래서 오위는 수행이 동시에 교화에 나타나고 교화가 그대로 수행임을 말해주는 수증일여(修證一如)를 체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³¹⁾ 이와 같이 동산양개의 오위에 대하여 그의 제자 조산본적(曹山本寂)이 갖가지 주석을 붙인 것이고, 조산 본적의 제자인 혜하(慧霞)가 편집했으며, 법계가 분명치 않은 광휘(光輝)가 석(釋)을 가하여 『동산오위현결(洞山五位顯訣)』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유포시킨

색(色), 체(體)와 상(相)으로 대비되었다. 오위 가운데 정중편·편중정·정중래·편중지는 모두 정과 편, 곧 공과 색으로 대별하여 회통(會通)하려는 뜻을 담았지만, 주빈을 나타내고 위(位)와 종(宗)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제5위인 겸중도는 정도 편도 아닌 중도로서, 그 둘을 융성하려는 것이다. 겸중도는 혜하(慧霞)가 제시한 상겸대래(相兼帶來)로서 빈과 주를 잇으며, 편과 정을 초월하여 지묘(至妙)하고 지현(至玄)한 것이다. 거기에는 언설(言說)과 어묵(語默)이 따로 잇지 않은, 곧 진중(眞宗)의 경지가 펼쳐진다. 일연은 정편오위와는 다른 오위를 제시하여 보충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정중래·정중편·편중정·겸중지(兼中至)·겸중도이다. 앞에서 든 정편오위의 편중지(偏中至) 대신에 겸중지가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일연은 보충 설명을 통해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더 특색있게 내세웠다. 곧 겸중도(兼中到)에 겸중지를 더 보탬으로써 중도 융섭적인 선종사상을 보다 강하게 견지했다.” 김두진, 앞의 책,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pp.63-64.

31) 김호귀, 앞의 책, 『인물 한국선종사』, pp.132-133.

것이다. 여기에다 다시 고려의 회연(晦然) 일연이 보(補)를 붙여 새롭게 『중편조동오위』를 편찬하여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³²⁾

중요한 것은 일연이 『중편조동오위』를 편찬한 과정에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조동오위를 수행의 단계적인 것으로 끌어내려 수준의 차이로 파악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또한, 다섯 가지의 명칭의 변화도 생겨 동산양개의 본래의 의도가 퇴색하게 되었다. 이때 일연은 동산양개가 본래 의도했던 정통성을 회복하려 시도했다. 그 내용은 『중편조동오위』 보주에서 편찬에 대한 의도를 여러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표 1>과 같다.

<표 1>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편찬에 대한 의도³³⁾

번호	권별	내용
1	상	정위(正位)는 동산(洞山) 이전에 교학에서 사용했음을 밝힘. 『유마경』, 『화엄경』, 『이세간품』, 『기신론』 등에 보이는 용례를 제시함. 이어 암두(岩頭) 대사의 견해를 제시함.
2	중	「축위송(逐位頌)」의 저자는 조산 본적이며 오위를 밝히려고 다섯 편의 계송을 지었다는 견해가 합당함을 밝히고, 동산이 ‘오위군신(五位君臣)’을 표준으로 삼고 또 그 아래에다 계송을 지었다고 한 『임간록』의 기록과 동산이 「축위송」을 지었다고 한 다른 견해를 비판함.
3		동산이 지은 오위군신계」의 ‘정중래(正中來)’에서 “지난 조정에 허잘린 재사보다 낫다고 하겠네”라는 구절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이를 『임간록』의 기록을 통해 수정 보완함.

일연은 <표 1>의 보주 1번과 2번과 같이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편정오위가 처음 동산양개로부터 비롯함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석가모니의 중생교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뒷받

32) 김호귀, 「曹洞五位의 構造와 傳承」 『한국선학』 Vol.1, 한국선학회, 2000, pp.148-150.

33) 晦然(一然), 앞의 책(韓佛全6, 216상-244하); 채상식, 앞의 논문, 一然의 『重編曹洞五位』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p.224의 <표>를 참조.

침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일연은 경초선(莖草禪)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경초선에 대한 유래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³⁴⁾ 여기서는 유래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 중심을 두고 살펴보겠다. 경초선은 본래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이 죽어서 다음 생에 풀을 뜯는 축생으로 태어나 주인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³⁵⁾ 곧 보살이 다른 모습으로 환생[異類中行]하여 중생의 교화에 매진한다는 내용이다. 동산양개가 처음 편정오위를 제창한 근본목표가 바로 보살행의 실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연은 동산양개의 편정오위에 대하여 그것을 실제로 정형화하고 체계화시킨 이는 제자 조산 본적이라는 것을 밝히려 했다. 『중편조동오위』 서문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고 아들이 그 사업을 완성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³⁶⁾ 동산이 제창한 것을 그 제자인 조산이 널리 오위사상을 선양하고 보살행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여 스스로 계송을 붙였으며, 나아가서 동산의 편정오위에 대하여 조산은 그 해석을 가하고 심지어 낱말의 구절에 대하여 주석을 포함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계송의 작자가 조산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의의는 동산이 겨냥한 편정오위의 실천내지 그에 바탕을 둔 보살행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은 조산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

34) 경초선이 언제 유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영섭 교수는 소나 말이 뜯어먹는 풀 혹은 여물의 의미를 지닌 경초(莖草)란 용어는 청한 설잠(淸寒雪岑, 1435-1493)이 일연의 『중편조동오위』의 서문(雪岑, 『重編曹洞五位序』(韓佛全6, 216상)에 “人或面之 以莖(山+ノ)禪 謂涉意想 置之闕外.”을 붙여 사용한 것으로서 조동선의 정수를 표현한 개념이며, 이를 신라의 정중 무상(淨衆 無相, 684-762)의 선법의 풍모로 보기도 한다고 했다. 고영섭, 앞의 논문, 「청한(淸閑) 설잠(雪岑)의 불교 인식: 조동선(曹洞禪)과 경초선(莖草禪)의 스님과 퍼짐, p.117, 주1).

35) 김호귀, 앞의 책, 『인물한국선종사』, p.134.

36) 晦然(一然), 앞의 책(韓佛全6, 218중), “又親承克家曹山 父子皆云 洞山顯訣 此爲明證 何必惑於後來之說乎.”

는 것이야말로 조동종의 선사상, 나아가 일연의 선사상이 추구하는 보편성이라는 것이다. 바로 보살행이 투영된 선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보주 3번에서와 같이 일연은 편정오위 가운데 제4위의 용어를 편중지를 확정했다. 본래 오위의 다섯 가지 용어는 정중편·편중정·정중래·편중지·겸중도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종파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편중지를 겸중지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연이 편중지를 정통으로 확정하려고 했던 의도는 정중편과 편중정이 댓구를 이루고, 정중래와 편중지가 댓구를 형성하여, 마지막 겸중도가 그 모두를 갈마하여 겸중도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즉 겸중도 중심의 경우는 앞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관계되는 것에 반하여 편중지가 겸중지가 될 경우 정중래 중심이 되어 단순히 중앙의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겸중도 중심은 보살행의 일체행위 가운데 수행과 교화와 깨침의 의미가 두루 드러나 보살의 일체의 행위가 중생과 함께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³⁷⁾이 되어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았을 때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실천케 한 일연의 공로가 여기에 있다.³⁸⁾

따라서 선사로서의 일연의 삶의 모습은 보살행이 투영된 경초선(莖草禪)으로 표현할 수 있다.³⁹⁾ 소나 말이 뜯어먹는 풀 혹은 여물의 의

37) 화광동진(和光同塵) :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찬란하게 눈부신 무루지(無漏智)의 광명을 잠깐 숨기고, 세속의 번뇌 오탁의 티끌에 섞여서 중생들에게 인연을 맺게 하고, 마침내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38) 김호귀, 앞의 책, 『인물한국선종사』, pp.134-139.

39) 그리고 그는 “사가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이 본디부터 부처와 인연이 있었던 나라이므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인간상으로서 발심하는 존재, 서원하는 존재로서의 불교적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기도 했다. 고영섭, 『三國遺事』의 불교철학적 접근, 『한국의 민속과 문화』 Vol.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p.230.

미를 지닌 경초(莖草)란 용어는 조동선의 정수를 표현한 개념이다. 소가 되고 말이 되어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피모대각(被毛戴角) 이류중행(異類中行)의⁴⁰⁾ 현실지향의 선법의 품모는 종래의 임제선 간화선과 달리 대중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⁴¹⁾ 그래서 그의 가풍은 인간 세계에서 중생의 이익 됨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초의 기호처럼 『삼국유사』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도 바로 위 없이 바로고 평등한 깨달음[阿耨多羅三藐三菩提]을 얻기 위해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얻은 성취를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서원하는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⁴²⁾

이상과 같이 당시까지 전승되어 오던 조동오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실천방법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킨 경초선 사상은 일연의 사상적 특징 가운데 하나를 잘 보여준 것이다. 이를 그의 역작인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40) 피모대각(被毛戴角) : ‘은 몸을 털로 덮고 머리에 뿔을 이라’ 소는 늘 순하고 착하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인간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죽어서도 이로운 동물로 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뜻. ; 이류중행(異類中行) : 이류 중에 행한다 하면, 동류(同類)에 대한 이류(異類)로, 동류를 사람이라 하면 이류는 귀축(鬼畜)이니 여태(驢胎)·마복(馬腹)에 들어가 설법하는 것. 사장(師匠)이 자유로운 기략(機略)이 있어서 하화중생(下化衆生) 또는 위인도생(爲人度生)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상(相)을 나타내는 것. 선사가 수행자나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과 교화에 힘쓰는 일. 당나라의 고승 남전보원(南泉普願)이 주장한 수행법이다. 즉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자기의 본지(本地)에 머물지 않고, 생사윤회 속에 있는 다른 중생[異類] 속에 태어나 교화의 행을 하는 것이다.

41) 고영섭, 앞의 논문, 「청한(淸閑) 설잠(雪岑)의 불교 인식: 조동선(曹洞禪)과 경초선(莖草禪)의 스میم과 퍼짐」, p.117.

42) 고영섭, 앞의 논문, 『三國遺事』의 불교철학적 접근」, p.231.

IV. 경초선(莖草禪)과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유사』는 삼국의 정사(正史)에서 ‘빠진 이야기[遺事]’들은 고기류(古記類)·고문서(古文書)와 비문(碑文)·불교 서적(佛敎 書籍)·중국 사서(中國 史書) 등의 다양한 문헌들의 인용문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고대 역사적 신이(神異)와 불교관계 사적을 되도록 원형에 가깝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 편찬 의도와 목적은 민족의 주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또는 불교사상의 포교 및 교화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필자는 『삼국유사』의 불교 교화적인 성격에 주목한다.⁴³⁾ 이러한 관점에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불교사 초기의 매우 중요한 문헌이며 불교신앙, 사상, 예술 및 수행과 이적 등에 관한 기록이 역사의 전개 과정과 연결되어 다량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43)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에서는 “『삼국유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불교가 전래 되어 정착되는 과정을 기술한 측면과, 승려들의 행적이 「의해」편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량으로 기록되었고, 불교사상, 예술, 수행, 이적 등에 관한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사서, 승전, 불교문화사서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다. 박진태·정호완·이동근·김복순·이강욱·조수동,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p.97. ; 일찍이 권상로는 “일연에 있어서 저술로서의 가치가 어떠 했던 간에 그것이 법속(法俗)을 통한 중요한 전적이요, 또 불교를 퍼뜨리기 위한 그의 만년의 역작이었다.”라고 했다. 권상로 역해,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2012, p.10. ; 김상현은 『삼국유사』는 불교사적(佛敎史的)인 성격이 매우 짙은 사서(史書)이지만 그간 일연의 불교사관(佛敎史觀)에 구체적 연구가 없었으며,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진행된 종래의 연구는 다소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을 ① ‘불교사 영역의 확대’, ② ‘불국토 및 호국불교사상의 강조’, ③ ‘일연의 대중 불교 및 민중에 대한 의식이 적극적 반영’ 등을 들었다.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제20호, 한국사연구회, 1978, p.20. ; 명계환, 「麟角一然의 孝善 思想 研究 -『三國遺事』, 「孝善 篇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19, p.54.

또 일연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고려사회에서 국존(國尊)으로 활동했으며, 일생을 승려의 신분으로 일관했다. 승려에게 중생구제(衆生救濟)에 대한 원력(願力)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이자 보편적 인식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수록 의도를 불교의 교화적인 면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삼국유사』에 인용된 문헌들 가운데 불교 경전(經典)과 논소(論疏), 그리고 그 속에 반영된 사상을 살펴본다면 그 실천방법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킨 『중편조동오위』의 경초선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삼국유사』에는 경전의 원명(原名)보다는 이명(異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조목에 나타난 주요 경명에 대한 인용 횟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삼국유사』에 인용된 경전명과 횟수⁴⁴⁾

인용한 經典名 (가나다 순)	原名	인용 횟수 (51)	권, 편, 조목
『金剛般若經』	『金剛般若波羅蜜經』	1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金經』, 『金光經』	『金光明最勝王經』	2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권4, 義解 5편, “賢瑜珈海華嚴”
『觀佛三昧經』	『觀佛三昧海經』	1	권3, 塔像 4편, “魚山佛影”
『大藏經』, 『正藏』, 『藏經』	『高麗大藏經』 『漢譯大藏經』	4	권3, 塔像 4편, “前後所藏舍利”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권4, 義解 5편, “慈藏定律” 권4, 義解 5편, “眞表傳簡”
『般若經』, 『六百般若』	『大般若波羅蜜多經』	2	권4, 義解 5편, “圓光西學”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梵網經』, 『菩薩戒本』	『梵網經盧舍那佛說 菩薩心地戒品第十』	2	권4, 義解 5편, “慈藏定律” 권5, 感通 7편, “金現感虎”
『法華經』,	『妙法蓮華經』	5	권3, 塔像 4편, “四佛山 掘佛山 萬

44) 명계환, 「『三國遺事』의 經典과 經文」,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 한국불교사연구소, 2018, pp.55-57.

『蓮經』, 『法華』			佛山”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권5, 避隱 8편, “朗智乘雲 普賢樹”
			권5, 避隱 8편, “緣會逃名 文殊帖”
『佛報恩經』	『大方便佛報恩經』	1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舍利佛問經』	『舍利弗阿毘曇論』	1	권4, 義解 5편, “眞表傳簡”
『三藏』		4	권3, 塔像 4편, “前後所藏舍利”
			권4, 義解 5편, “圓光西學” (2회 인용)
			권5, 感通 7편, “憬興遇聖”
『隨求陀羅尼』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	1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普賢章經』		1	권5, 感通 7편, “憬興遇聖”
『阿含經』, 『四含』	『阿含經』	1	권3, 塔像 4편, “迦葉佛宴坐石”
『涅槃』, 『涅槃經』	『大般涅槃經』	2	권3, 塔像 4편, “高麗靈塔寺”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仁王』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2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占察經』	『占察善惡業報經』	7	권4, 義解 5편, “眞表傳簡”(5회)
			권4, 義解 5편, “關東楓岳鉢淵巖石記”
			권4, 義解 5편, “心地繼祖”
『地藏經』	『地藏菩薩本願經』	1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華嚴經』, 『大經』, 『雜華』, 『華嚴大典』	『大方廣佛華嚴經』	12	권1, 紀異 2편, “元聖大王”
			권3, 塔像 4편,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권3, 塔像 4편, “臺山五萬眞身” (2회 인용)
			권4, 義解 5편, “慈藏定律” (2회 인용)
			권4, 義解 5편, “元曉不羈”
			권4, 義解 5편, “義湘傳教”

			권4, 義解 5편, “賢瑜伽海華嚴”
			권5, 感通 7편, “憬興遇聖”
			권5, 避隱 8편, “朗智乘雲 普賢樹”
			권5, 孝善 9편, “眞定師孝善雙美”
『後分華嚴經』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표 2>를 보건대 일연이 불교 경전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는 총 51건이 있으며, 인용 횟수 면에서는 『화엄경』 12번, 『점찰경』 7번, 『법화경』 5번 순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불교 논소(論疏)로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삼국유사』에 인용된 불교 논소⁴⁵⁾

인용한 經典名 (가나다 순)	原名	인용 횟수 (20)	권, 편, 조목
『觀師義疏』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教分記』,	『華嚴經教分記』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起信疏』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法界無差別論疏』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三論』		1	권5, 避隱 8편, “惠現求靜”
『三昧經疏』	『金剛三昧經論』	1	권4, 義解 5편, “元曉不羈”
『釋論』	『釋摩訶衍論』	1	권4, 義解 5편, “圓光西學”
『攝論』	『攝大乘論』	1	권4, 義解 5편, “圓光西學”
『成實』, 『成實論』	『成實論』	1	권4, 義解 5편, “圓光西學”
『心源章』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十二門疏』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肇論』		1	권4, 義解 5편, “二惠同塵”
『智論』	『大智度論』	1	권5, 感通 7편, “眞身受供”
『錐洞記』		2	권5, 孝善 9편, “眞定師 孝善 雙美”
			권4, 義解 5편, “義湘傳教”
『搜玄疏』	『華嚴經探玄記』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探玄記』		1	권4, 義解 5편, “義湘傳教”

『華嚴梵語』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華嚴疏』		1	권4, 義解 5편, “元曉不羈”
『玄義章』		1	권4, 義解 5편, “勝詮觸體”

<표 3>을 보건대 일연은 불교 논소를 총 20차례 거론하고 있다.

위의 <표 2>와 <표 3>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이다. 먼저 ‘선적(禪籍)보다는 경전, 그리고 논소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연이 선승이었다는 것은 공통된 견해이지만 『삼국유사』에는 선(禪)에 관련된 경전이나 어록(語錄)은 찾을 수 없다. 『삼국유사』에서 범일, 신의, 양부, 공양, 보양 등의 선사(禪師) 정도는 언급하는데, 이들도 사찰 건립이나 중창자로 소개할 뿐 선 사상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없다.⁴⁶⁾ 마치 의식적으로 선적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짐작컨대 선사들의 선문답(禪問答)의 내용을 담은 선어록(禪語錄) 등은 민중들에게는 좀처럼 와 닿지 않는 어려운 분야로 인식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전과 논소를 인용한 이유에 있어서도 불교를 학문적으로 풀이하는 교학(敎學)보다는 쉬운 불교 신앙⁴⁷⁾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불교의 계율, 수행, 강론, 독송, 사찰 건립의 연기 설화, 경전과 논소의 전래, 논소의 찬술, 예불 공양 등인데, 이는 불교의 신앙에 관련된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중생의 교화를 위한 방편과 관련된 내용이다.⁴⁸⁾

『삼국유사』에 담긴 불교신앙에 대한 내용은 무애의 실천, 연화장 세계에 대한 영험과 화엄신앙, 추선과 왕생정도로 불교를 민중에 자

45) 명계환, 앞의 논문, 『三國遺事』의 經典과 經文, p.70.

46) 박진태 외 5인, 앞의 책, p.98.

47) ‘信仰’은 부처님·보살이나 성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기뻐서 추앙하는 것. 곧 仰信. 金正佺, 『佛敎學大辭典』, 弘法院, 1988. p.926. ; ‘信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金正佺, 같은 책, p.929.

48) 명계환, 앞의 논문, 『三國遺事』의 經典과 經文, p.70.

리 잡게 하는 정토신앙, 현실적인 욕망과 세속적 번뇌에 대한 민중구원과 이에 대한 자발적 응현구제(應現救濟)의 형태인 관음신앙으로 민중들에게 이상사회 도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또 현실에서의 재생과 미륵감응의 미륵신앙, 제환유병(除患愈病), 양재여락(禳災與樂)으로 민중을 구원하는 밀교신앙, 『금광명경』에 근거하여 도리천 신앙과 사천왕 신앙의 형태인 호국불교를 각인시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⁴⁹⁾ 덧붙여 이러한 내용들의 독특한 서술방식에 특징이 있다. 그는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매우 친근감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교화하고 있다.⁵⁰⁾

그렇다고 해서 일연이 학문에 대한 견해와 안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비문을 보면 일연이 “참선하는 여가에는 다시 대장경을 읽고 여러 대가들의 주석을 속속들이 궁구하고, 유가의 서적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를 다 관통하였다. 그리하여 장소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하며 묘용, 곧 방편을 발휘함에도 거침이 없었다.”⁵¹⁾라고 하고 있다. 그는 교학 관련 서적에도 조예가 깊으며 다양한 인식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난해한 교학보다는 화엄·관음·정토·미륵·밀교 신앙이라는 쉬운 이야기로 내용을 전개한 점

49) 박진태 외 5인, 앞의 책, pp.225-268을 참조.

50) 고영섭 교수는 “『삼국유사』는 온갖 꽃들로 장엄하고 수식한 『화엄경』이나 문학적 정취가 뛰어난 『유마경』처럼 드라마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깨친 마음과 깊은 혜안, 뛰어난 식견을 지닌 일연이 제시한 인간과 삶에 대한 함축적 묘사, 역사와 설화, 사실과 허구,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중횡무진 넘나들며 끝없이 펼쳐지는 상상력, 그리고 그 가운데 문득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와 그 후에 남는 긴 여운과 아련한 감동이다. 이것이 『삼국유사』를 읽는 재미다. 그 재미와 감동은 무궁무진한 불교적 상상력으로 그 외연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는 우리 시대의 화두인 문화콘텐츠의 보배창고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했다. 고영섭,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박문사, 2015, p.22.

51) 불교중앙박물관, 앞의 책, pp.264-268의 번역과 원문을 참조. “又於禪悅之餘再閱藏經窮究諸家章 旁涉儒書兼貫百家而隨方利物妙用縱橫.”

은 그의 마음이 민중의 마음속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그가 『중편조동오위』에서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하여 회향시킨 경초선의 사상처럼, 『삼국유사』에서도 자신의 재지를 숨기고 오로지 중생교화에 매진하는 대승의 실천자이자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⁵²⁾

V. 정리와 과제

일연은 승려로서 자신의 문중 선풍만 고집하지 않고 조동종의 주요 전적을 주석하거나 교학 관련 서적도 집필하였으며, 또 신앙적 측면까지 모두 아우르며 선(禪)·교(敎)를 통攝(統攝)하면서 대중 지향

52) 일연이 대승보살행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보경사(寶鏡寺)의 주지(住持)이자 통오진정(通奧眞靜) 대선사(大禪師)인 산립(山立)이 지은 “인각사보각국존비음기(麟角寺普覺國尊碑陰記)”에 잘 나타나 있는데, 문도들이 일연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일연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마치 바구미가 해해(醯醢)의 냄새를 인하지 않고는 모여드는 자가 없는 것과 같다. 그 중요한 원인은 스님께서 상구보리인 실천 수행의 도덕이 고매하여 생사거래가 마치 몽환과 같음을 증득한 후, 하화중생인 지·비·행·원(智·悲·行·願)으로 감득한 결과인 것이다(然 尊之焉 師之焉 未必不由醯醢而蚋聚 要其所自來 但履踐篤實 一去來覺夢等 彼已 智慧行願 喜有所感而致之耳).” 가산 지관 역주, 앞의 책, pp.604-605의 번역과 원문을 인용. 여기서 지·비·행·원이란 대지(大智)·대비(大悲)·대행(大行)·대원(大願) 등 대심(大心)의 보살도이다. 대지는 대지문수(大智文殊), 대비는 대비관음(大悲觀音), 대행은 대행보현(大行普賢), 대원은 대원지장보살(大願地藏菩薩)을 지칭함이다. 대승의 보살은 중생구제의 서원(誓願)을 세우고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廻向)한다. 그래서 보살은 언제나 중생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한다. 비문은 일연이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하고 회향시킨 경초선(莖草禪)에 입각한 사상가였음을 뒷받침한다. 명계환, 앞의 논문, 『三國遺事』의 經典과 經文, pp.92-93.

의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가 편찬한 『중편조동오위』에서는 조동오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실천방법을 보살행으로 회향시키고 있었다. 일연은 중생교화를 위해서라면 죽어서 다음 생에 풀을 뜯는 마소[馬牛]가 되어서라도 주인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경초선(莖草禪)에 입각한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삼국유사』에도 잘 나타나는데, 그가 선사로서의 선적(禪籍)이나 어려운 교학(敎學)보다는 불교 경전(經典)과 논소(論疏)를 인용했으며, 그 내용도 쉽고 재미난 신앙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하는 등 대중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대승이 대승다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제도하지 않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自未得道 先度他)’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⁵³⁾ 그래서 대승의 보살은 중생구제의 서원(誓願)을 세우고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廻向)한다. 이와 같이 일연은 선사의 모습을 보살행으로 승화하고 회향시킨 경초선(莖草禪)에 입각한 사상가였다.

향후 일연의 사상을 보다 반듯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더 제시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국유사』 문장 속에 담긴 행간(行間)을 읽어내는 능력에 대한 향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연과 같이 수행자적 입장이 되어 삶에 대한 통찰을 꾀한다든가, 또는 그가 남긴 저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탐구 속에서 문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일연이 고승들의 삶을 전기형식으로 서술한 『삼국유사』 「의해 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 5권 중에는 250여 명의 승려가 등장한다. 그 가운데 의해 편은 1권을 차지하는 적지 않은 분량 속에 고승 14인(거사 1인)만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연만의

53)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一考, 『불교학연구』 Vol.24, 불교학연구회, 2009, pp.119-120.

고승 수록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비약하자면 그가 승려의 입장에서 지향하는 승려의 삶이 무엇인지 잘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그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⁵⁴⁾ 일연의 사상과 철학의 수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54) 『수능엄경환해산보기(首楞嚴經環解刪補記)』와 「산보통방(刪補通妨)」에는 일연 선 사상의 片貌라도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아울러 이 자료 가운데 「산보통방(刪補通妨)」에는 일연 선사상의 片貌라도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매우 난해한 자료기에 더 이상 진척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 자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月雲 스님(金成九)은 「普幻의楞嚴經理解-『首楞嚴經環解刪補記』를 中心으로」,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992의 논문에서는 『首楞嚴經環解刪補記』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했다. 고려 말 선승 普幻이 지은 이 자료에는 「刪補通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환의 『산보기』에 대한 일연의 질문 혹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妨’과, 이에 대한 보환의 답변인 ‘通’이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일연이 문제를 제기한 항목 모두가 ‘산보통방’에 수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에 실려 있는 22개 항목은 지금도 『능엄경』 해석상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능엄경』과 일연의 선사상 이해를 위해 「산보통방」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자료적 성격을 지니지만, 난해한 자료의 성격으로 인해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했다. 김상영, 앞의 논문, p.82.

참고문헌

<원전>

一然, 『三國遺事』, 韓佛全6
 曹谿 退隱 述, 『禪家龜鑑』, 卍續藏經63
 晦然(一然), 『重編曹洞五位』, 韓佛全6

<단행본>

가산지관·대한불교조계종 역주,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 전통사상총서·불교편 12 精選 韓國高僧碑文』,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2011.
 고영섭,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박문사, 2015.
 김두진,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김호귀, 『목조선 연구』, 민족사, 2001.
 _____, 『인물한국선종사』, 붓다북, 2010.
 박진태·정호완·이동근·김복순·이강욱·조수동,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불교중앙박물관, 『인각사와 삼국유사』, 대한불교조계종 출판부, 2013.
 이창섭·최철환,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2002.
 『육당 최남선 전집』, 「『삼국유사』 해제 8 인용문」 8권, 현암사, 1973.
 채상식,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7.

<논문>

고영섭, 「청한(淸寒) 설잠(雪岑)의 불교 인식: 조동선(曹洞禪)과 경초선(莖草禪)의 스밈과 퍼짐」, 『문학/사학/철학』 Vol.13,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
 _____, 「『三國遺事』의 불교철학적 접근」, 『한국의 민속과 문화』 Vol.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김나영, 「『三國遺事』를 통해 본 일연 불교사상의 실천적 의지 - 『重編曹

- 洞五位』의 논리에 입각하여-], 『한민족어문학』 Vol.66, 한민족어
문학회, 2014.
- 김두진, 「일연의 心存禪觀사상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학논총』 2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3.
- 김상영, 「삼국유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삼국유사 문화콘텐츠세미나』,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2009.
- 김지견, 「일연의 증편조동오위서 역주」, 『수미산문과 조동종』, 『구산선문』
8, 불교영상회보사, 1996.
- 김호귀, 「曹洞五位의 構造와 傳承」 『한국선학』 Vol.1, 한국선학회, 2000.
- 명계환, 「『三國遺事』의 經典과 經文」,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 한국불
교사연구소, 2018.
- 민영규, 「일연의 선불교-신라와 고려의 구산선문은 남종이 아니고 북종
이다」,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973.
-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一考」, 『불교학연구』 Vol.24, 불교학연
구회, 2009.
- 서경희, 「『三國遺事』에 나타난 華嚴禪의 文學的 形象化 : 一然의 世界觀
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04.
- 오대혁, 「一然의 禪思想과 『三國遺事』의 상관성」, 『한국어문학연구』
Vol.60, 한국어문학연구회, 2013.
- 윤천근, 「일연의 불교사상 - 조동선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동서철
학연구』 Vol.60, 한국동서철학회, 2011.
- 채상식, 「一然의 『重編曹洞五位』에 보이는 사상과 역사성」, 『지역과 역사』
Vol.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Thought of Ven. Bogakguksa Iryeon

Myung, Gye-hwan

(Dept. of Buddhist Studies adjunct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understanding of the thought of Bogakguksa Iryeon (1206 - 1289), an eminent monk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efforts to clarify his thought are important because of the historical value of the *Samguk Yusa* (『三國遺事』 Legends an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When w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Iryeon's thought, we can get a prope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Samguk Yusa*. To this end, I reviewed his work, *The Joongpyun Jodong-owi* (『重編曹洞五位』), along with the Buddhist scriptures and manuscripts cited in the *Samguk Yusa*, treatises and commentaries, and I also investigated an epitaph containing Iryeon's life and ideas.

Especially, in his writing *Joongpyun Jodong-owi*, Ven. Iryeon transferred his merit to other living beings for their benefit through the practices of Mahayana bodhisattvas (大乘菩薩行) in which they use various expedients to enlighten sentient beings (異類中行) on the basis of the Caodong (曹洞) School's "theory of five stages (五位說)". We can see that Iryeon was a thinker based on Budha Seon (莖草禪), who repays the master's grace for the edification of sentient beings even if he died as a cow in the next life. This ideological tendency is also reflected in the *Samguk Yusa*, where he cites Buddhist scriptures and treatises and commentaries rather than Seon

texts and difficult doctrines. The contents of the book are also written in a popular way, including narrative descriptions of easy and fun faith.

The so-called the Mahayana (大乘, the Greater Vehicle, or the Bodhisattva Vehicle) is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Deliver others first, even if you don't deliver yourself (自未得道 先度他)'. The Mahayana's Bodhisattva establishes vows of deliverance and transfers his own accumulated merit of virtuous roots to all sentient beings. Il-yeon was a thinker based on the Buddha Seon (莖草禪), who sublimated and dedicated his/her practices of Mahayana Bodhisattvas as Seon Master to all beings.

Key words

Iryeon(一然), the *Samguk Yusa*(『三國遺事』), the *Joongpyun Jodong-owi*(『重編曹洞五位』), the Buddha Seon (莖草禪), the practices of Mahayana bodhisattvas(大乘菩薩行)

논문투고일 : '19. 10. 31. 심사완료일 : '19. 11. 20. 게재확정일 : '19. 11. 20.